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

|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15:00

| 장소 | 온라인 생중계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

|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15:00

| 장소 온라인 생중계

| 주최  교육부

|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세부일정

일시 2020. 11. 13.(금), 15:00

장소 온라인 생중계

주최 교육부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시 간	내 용
14:30~15:00	등록(온라인 접속)
15:00~15:10	개 회
	주제발표 1
15:10~15:30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고교학점제 - 발 표 : 이 상 찬 별무리학교 교감
	지정토론 1
15:30~15:40	- 토 론 : 우 소 연 꿈이룸학교 교장
	주제발표 2
15:40~16:00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사례 - 발 표 : 채 욱 경 지오학교 교감
	지정토론 2
16:00~16:10	- 토 론 : 안 성 균 산마을고등학교 교장
16:10~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30	폐 회

Contents

주제발표 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고교학점제 1

이 상 찬 | 별무리학교 교감

지정토론 1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과 진로’ 토론편 21

우 소 연 | 꿈이룸학교 교장

주제발표 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사례 31

채 욱 경 | 지오학교 교감

지정토론 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사례, 토론편 41

안 성 균 | 산마을고등학교 교장

주제발표 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고교학점제

이상찬
별무리학교 교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와 고교학점제 “맞춤형 교육과정과 진로지도”

이 상 찬 (별무리학교 교감)

B학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한 지 4년이 지나간다. 처음 고등과정을 개설할 지에 대한 논의만큼, 개설 후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국내의 우수한 학교들을 돌아보며 교육과정과 특색을 살피고 2015년 10학년 과정을 개설하면서 B학교의 고등과정은 시작되었다. 시작한 그해 적어도 B학교 고등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핵심 운영 중점으로 두었다. 체계적인 진로지도, 진로에 맞는 학습 조절, 학생의 성취에 알맞은 진로 및 진학을 안내하고자 했다.

고등과정 개설 첫 해 9월부터 겨울 방학 내내 지속된 긴급논의 모임은 고등학교의 방향성을 다시 고민한 자리가 되었고 그 방향에 맞게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교가 길러주어야 할 가치와 역량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중요한 기간이었다. 이 글을 통해 B학교에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고, 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운영되었는지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I 서론

‘고교학점제’라는 주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과도한 경쟁체제를 없애고 학생들이 자신의 재량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찾아가도록 하자는 의도로 논의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루어나가고자 한다.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고,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래사회 4차 산업구조 및 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준비로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며,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등 국가 교육 정책적 흐름이다. 따라서 학교는 다양한 과목개설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학습 계획에 따라 수강 희망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된다.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이 아닌 성취도(A,B,C)를 대입 전형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된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부터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전면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2025년 고1부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대안학교가 존재하고, 학교가 추구하는 목적 또한 각기 다르다. 하지만 대안 학교들은 교육의 본질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한다는 점, **“학생의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 등 공통의 철학을 지니고 있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대안학교는 학생들에게 개성과 적성에 맞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제공, 진로 연계 교육과정 제공 등을 함께 고민해 왔다.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뛰어넘어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학교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II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점제

1 맞춤형 교육과정(Personalized Curriculum)

2016년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략 2022년 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성적 중심에서 소질과 적성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분야의 교과중점학교 확대, 학생의 진로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교육부 2016). 그리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2025년 까지는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육 상황은 이런 계획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대학 진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되고 학교 중심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제도권의 안일한 교육 방향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내용과 교과 과정을 통해 구조적인 전환을 꿈꿨던 대다수의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들도 결국 ‘대학 진학’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입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대학에 귀속된 학교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허수아비 같은 부속적 존재가 되어 갈 것이다. 이는 장차 학문과 삶의 본질을 추구해야 할 학생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입시교육을 진행한 학교들이 궁극으로 바라던 대학에게도 좋지 않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존중받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고 싶은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2 학점제와 운영 요소

맞춤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점제이다. 학점제는 교과별 이수 성취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각 과목별 학점이 누적되어 설정해 놓은 최소 졸업학점에 도달하는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구자역,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의 교육 선택권의 확충과 저마다의 능력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방향성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학점제는 운영의 형태에 따라 위계형, 선택형, 혼합형, 개방형의 네 가지가 있다. 위계형은 도구교과에 효과적이고, 선택형은 내용교과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클러스터형, 캠퍼스형 등이 현장에서 논의 및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조건 들이다.

1) 어드바이저

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자발성이다. 그리고 그 자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어드바이저는 학습, 신앙, 진로, 학교생활 등에 대한 학생의 성취와 성장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 어드바이저는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고, 어드바이저의 자기평가를 쿼터별로 시행하여 차기 쿼터 어드바이징에 반영한다.

2) 학습 관리 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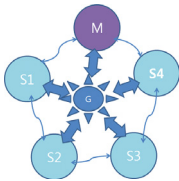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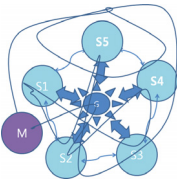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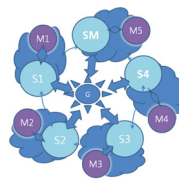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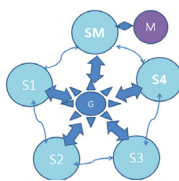
학점제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은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다. 학습자의 참여를 권장하고 학생이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그룹이나 학교 외부 교과 멘토를 동원하여 개설되는 학습 내용이 있다. 결국, 다양한 학습 내용과 부대적인 강의실 사용, 수업에 참여하는 교과 멘토들의 참여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확산적인 교과, 다양한 교과 멘토, 제한적인 강의실 사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은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3) 교과 멘토링(학습 코칭)

학점제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에서의 수업은 교사, 학생, 외부 멘토에 의해서 개설되고 운영된다. 그 과정에서 교과 전문성이나 학문적 이해를 구비한 수업 진행자는 내용면에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구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중심, 혹은 그룹 중심으로 개설된 수업은 계획과 학습 과정, 결과 평가에 대한 철저한 멘토링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준비성, 수업 진행 과정, 최종 평가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동의가 필요하다.

- 교내 교과 교사들의 시간표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학생은 쿼터별로 수시 혹은 **정기적인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다. 교과교사는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스터디 그룹 및 개인을 정기 혹은 수시로 멘토링을 한다. 멘토링의 유형은 주제별 학습전략(learning how to learn) 코치, 토의, 토론, 질의응답, 격려와지지 등의 형태로 운영한다.
- 학교는 멘토링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학교는 학습주제별로 **학교 밖 멘토를 발굴**하여 학생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외부 멘토(협력기관)를 연결한다.
- 멘토는 학생의 학습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관찰을 통해 어드바이저에게 유의미한 참조사항을 제공한다. 학교는 향후 **주제별 학생 멘토-멘티 제도**를 시행하여 **주제 및 영역별 네트워크 학습**을 활성화 한다.
- 온라인 학습 및 스터디 그룹의 형태에 따라 멘토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멘토링을 실시한다.

[그림 1] 멘토링의 유형

			
멘토 참여형	멘토 순회형	개별 멘토형	학생 주도형
공동학습 및 토론, 토의	자체 평가 및 질의응답	문제해결 및 전문 조언	비정기적 멘토, 학생주도 프로젝트

4) 쿼터제

학점제는 학습 요소를 분기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학습하는 내용 중심으로 짧게 끊어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과 교사들의 수업 진행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아 너무 긴 시간 집중하기 어렵다. 1년을 두 개 학기로 나누고 각 학기를 반으로 나눠 1년을 네 등분하여 쿼터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쿼터는 9주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1년 36주 학습에 참여한다.

Ⅲ 별무리 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

1 문제의식을 공유하다.

2015년 교육과정이 한 학기를 마무리할 즈음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 사이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두 차례 전국단위 모의평가를 치른 뒤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얼굴은 경직되었고, 교사들의 표정도 굳어가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교과목을 기준에 맞게 배열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이라는 학생 참여적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국단위 수능 모의 평가를 치르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서열을 만들고, 내 앞의 아이와 내 뒤의 아이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여름 방학을 보내고 이런 상황을 인식한 교사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9월 초부터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학교는 정체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다. 9월부터 시작된 모임은 그해 겨울방학을 온전히 다 쓰고 나서야 정리가 되었다. 학생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주어야 하는지, 학생들이 공부할 방향을 꾸준히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역량은 무엇인지,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치밀하게 논의 했다. 6개월여 동안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일제식 교육은 개인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모든 학생이 똑같은 속도로 배워주기를 요구한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 현장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진도로 수업을 받는다. 이런 수업은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처럼 진행된다. 이는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다. 뒤쳐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고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조치는 없다. 교사들은 뒤쳐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정말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못한다.

(2) 동일한 집단으로 놓고 교육하며 평균치를 제공하려 한다.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평균치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한다. 그러나 평균치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좌절을 겪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낮설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문제풀이식 교육이 쉽 없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수업 상황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루함과 두려움 이 두 가지는 아이들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또한 한없이 어리석게 만든다.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지나치게 활동적이어서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뛰어다니기도 한다. 이 모든 아이들을 조용히 앉혀 놓고 함께 어울리게 하며 같은 보조로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3) 학생들이 소외된다.

이런 교실에서는 교사는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야 수업이 수월 해지며 우왕좌왕 않게 되기 때문이다. 잘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을 싫어하게 된다. 못하는 아이들은 조직적으로 소외당하는데, 교사가 잘하는 학생들만 칭찬하기 때문이다. 체념과 왕따를 위해서는 최상의 조건이다. 가장 나쁜 것은 그런 수업에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 이른바 낙오자들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 모든 아이들은 서로 다른 부족함을 지니고 있는데도 학교는 일률적인 교재로 일률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단계인데 미리 정해진 진도를 고집하는 수업을 통해서는 그저 인지시키려는 강제성만 나타날 뿐이다. 원리 원칙을 고집 할수록, 업적과 성과를 지향하면 할수록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선생을 위한 수업이 되고 만다.

(4) 자기 관리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신감도 확신도 상실한다. 여기서는 외적인 자극을 통한 자기관리 능력도 키워지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수업을 통해서는 자기만의 전략을 개발할 수도 없다. 교사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수업 방식에서 아이들에게는 그저 앉아 있는 수동성만 요구된다.

교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며 교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아이들은 따른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교사를 믿어야만 한다. 교사의 평가는 절대적이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완전히 교사를 의존하게 되며 교사가 정해진 질서를 따라야 한다. 교사의 기분 상태를 조용히 견뎌내야 하고 그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교사는 한 학생을 좋게 평가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교사에게 많은 것을 숨기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에게 두려움을 갖게 된다.

2) 배우고 싶을 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야 능력이 오른다.

학교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가장 잘 배우게 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어떤 학습 방법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내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면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이런 지식을 매일 수업을 진행되는 동안 쌓아나가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이해하고 연습을 통해 채워나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는 이 모든 것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해낸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고, 또 학생들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뿐이다.

3)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생명력이 있다.

학생들은 교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우리에게서 얻고 싶어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능력을 믿어주면 학생들은 그것을 자기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회로 삼고, 또한 믿음과 확신의 발판으로 삼는다. 믿음의 출발은 학생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인내를 가지고 동화하려고 노력하는데서 출발한다. 너그러움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하려할 때 아이들의 세계가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자의식이 높아질 때 배움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성장하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공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 조금 어리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하여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학습에 대한 강요는 이러한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게 한다. 끊임없이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요구하며, 공부하도록 강요해 보지만 학생과 부모 또는 교사 사이에 상처만 생길 뿐 실제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크고 작은 시련을 이기는 힘이 진정한 실력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어떻게 낯선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처신해야 하고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며 또 그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그러나 수업시간에는 이런 것을 생각할 자리가 없다. 학생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각자의 학생들이 필요에 개별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미래의 교육 환경 및 필요한 역량이 바뀌고 있다.

(1) MOOC를 통한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고 있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란 온라인 공개 강의이다. 온라인 강좌의 최대 약점은 이수율이 낮다는 것이다. 강좌를 이수하는 비율은 4% 정도로 낮다. 사회생활로 인해 바쁘기도 하고 혼자 강의를 듣다 보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낮은 강의 이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그룹을 지어 MOOC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6명 정도의 그룹이 함께 강의를 듣거나 또는 자신이 듣는 강의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강좌를 이수하는 비율은 30%까지 올라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그룹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재능을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학습공동체가 되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 그 이수율은 83.5%까지 높아진다.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의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B학교에서 실시하는 MOOC**는 학교에서 어드바이저와 멘토의 관리 하에 학생들의 흥미나 학습하는 주제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룹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 그룹에서 학생들은 서로 배우는 것을 공유하며 자신이 moocster의 역할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룹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목표를 정하며 자신들의 학습 계획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며 양육교사(어드바이저)와 함께 학습을 해나간다. 필요에 따라서는 멘토를 연결하여 그룹에 참여시킨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학교 내의 다른 그룹 또는 주제에 따라서는 학교 밖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해 가는 것을 권장한다. 양육교사(어드바이저)들은 이 네트워크에서 학생들 역시 자신들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그룹의 moocster가 되어 필요한 그룹을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안내한다.

2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선택한 교과 및 수업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교육과정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수업을 제공하는 **교사 집단만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린 결론**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다. 심지어 교과 내용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만들거나 주도하는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점제는 중요한 기본 조건이 된다.

1)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개요

학교는 **쿼터(4학기)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다양한 학습 설계를 장려하고 쿼터 종료 후 **프로젝트 학습 주간**을 통해 학습의 보충, 심화, 현장(학교 밖)과의 통합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학생은 필수학점과 선택학점, 졸업 요건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를 정해진 규정과 시기에 따라 이수한다. 한 쿼터 당 학생이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필수 6학점, 선택 17학점이며, 선택학점은 20학점 이상 신청할 경우 어드바이저와 협의하여 적정성을 검토 받은 후 신청 할 수 있다. 필수학점은 졸업을 위해 매 쿼터별 6학점씩 100% 이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교사가 인정하는 대체 과제 및 활동으로 과목 이수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선택학점은 학교가 개설해 놓은 다양한 교과 뿐 아니라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며 학습 성취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멘토와 어드바이저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학생은 쿼터별로 학습결과에 대한 종합 발표회 및 멘토 평가, 어드바이저 평가,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이수 여부를 평가 받는다.

2) 맞춤형 교육과정의 구성

〈표 1〉 영역별 교육내용

영역	내용
가치와 역량의 이해	• 이 시대를 조망할 줄 아는 세계관 습득 • 삶의 주요 가치에 대한 공감(공동체, 제자도, 소명, 살림) •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는 양육 수업 시간, 예배, 상담을 통한 교육
자기 이해	• 학생종합검사(10학년, 11학년 1쿼터)-다중지능검사, 홀랜드검사(진로탐색, 전공탐색), 자기주도학습조절검사, 칭찬사전, 가치동사, 역량동사, • 통합 상담 후 자기이해보고서 작성(10학년, 11학년 1쿼터)- 핵심 Keyword • 개인(공동) 프로젝트 선정(수시) • 자기이해 자료 포트폴리오 축적(수시)

영역	내용
다양한 진로 경험	• 다양한 솔루션 프로젝트 참여 • 다양한 유턴십 참가 • 진로동아리 활동(수시) • 진로 포트폴리오 축적(수시) • 교내외 각종 대회 • 진로 및 인문독서활동(수시) • 봉사활동(수시)
경험 정리	• 포트폴리오 정리(3W) • R&E(소논문, 개인/공동체 프로젝트, 자서전)→ 전국 R&E 대회 출품(수시)
삶으로 배우기	• 후배들의 위한 조언(12학년 4쿼터부터) • 롤 모델과의 동행 • 교육 공동체로 활동

3 학점제의 지원을 위한 LMS 구축하다.

학점제에서 학생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는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수업이 소규모로 편성되고, 강의실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배울 교과에 대해 인적, 물적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 건물에 공지 사항을 게시하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각기 다른 시간표, 사방에 흩어져 가르치는 교사들, 사용 빈도가 높은 강의실 사용 여부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비’학교에서는 **정보기술 선생님 두 분이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그들만의 학습지원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 있다. 이것은 파편화되고, 소형화되는 학습 방식 및 학교 문화를 하나로 묶고 전체적인 흐름을 학습자와 교사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능에서부터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LMS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학생, 멘토, 어드바이저의 소통의 도구로 활용

학습자인 학생과 교과 전문성을 갖춘 교과 멘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진로, 생활, 자기 관리 일체를 관리하는 어드바이저들은 역할과 기능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학생의 소재 파악에서부터 학습하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학생의 시간표부터 수강신청 양식, 학습계획서, 전체 개설된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한다.

2) 맞춤형 교육과정에 필요한 양식과 절차 제공

(1) 학습계획서 만들기

LMS에 초대된 **모든 교과멘토, 외부멘토, 학생들은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교과 전문성이나, 역량을 갖춘 멘토의 경우 자유롭게 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 수업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교과 멘토나 전문가의 사전 멘토링을 거쳐야 개설이 가능하다. 위계가 분명한 도구교과의 경우 사전에 학습된 지식의 수준이 학생이 개설하려고하는 수업의 난이도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지, 학생이 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정확히 평가는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 탐구교과 혹은 진로와 관련된 내용교과의 경우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학습 내용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업은 개설할 수 없도록 철저한 멘토링을 거쳐야 한다.

(2) 수강신청하기

수강신청은 교과 멘토가 개설한 수업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학생들이 개설한 수업을 신청하게 되어있다. 수강신청을 위한 기본 정보(강의 제목, 내용, 학습계획서, 평가 방법)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수강신청의 예시

수강 신청			
멘토를 선택하세요.			
멘토	이상찬		
수강신청	강좌명	시간	학습계획서
신청	성경적 인권과 문화_이상찬/이상찬(회의실)	수10수9	보기
신청	BGA_최하은/이상찬(없음)	목5목6	보기
신청	미생물학_이상찬/이상찬(별등천 카페)	목5목6	보기
신청	바이올린 (스즈키 3권)_윤지선/이상찬(음악실1)	월5월6	보기

(3) 최종 학습계획서 완성하기

수업이 개설되었다고 모든 수업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선택해 주어야 수업이 개설된다. 교과 멘토들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면밀하게 파악해야하고, 학습자들과 아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교과 멘토는 학습계획서를 확정 짓기 전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학생들은 그 설명을 잘 듣고 본인이 수강할 과목을 마음속에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멘토 개설 수업 이외의 학생 개설이나 외부 멘토를 통하여 배우는 학생들은 교과 내용의 중복 여부나 누락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학습 계획을 짜야한다**.

3)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정보를 공유

(1) 강의실 사용 여부

사용하고 싶은 강의실을 클릭하면 무슨 요일의 어떤 시간에 강의가 있는지 나오며, 빈 시간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림 3] 강의실 현황 정보 제공

시간표			강의실	201/202
교시	월	화	수	목
2교시	☐	☐	☐	☐
3교시	PET 1_정미현/정미현 (201/202)	정보올림피아드 I_조 은길/조은길 (201/202)	영어 뉴스 및 영자 신 문_김형규/김형규 (201/202)	세계역사탐방_박은주/ 박은주(201/202)
4교시	PET 1_정미현/정미현 (201/202)	정보올림피아드 I_조 은길/조은길 (201/202)	영어 뉴스 및 영자 신 문_김형규/김형규 (201/202)	세계역사탐방_박은주/ 박은주(201/202)
5교시	한국사1(A)_박은주/ 박은주(201/202)	☐	한국사1(B)_박은주/ 박은주(201/202)	창의적 사고기법과 창 업 아이디어 _배영민/ 배영민(201/202)
	한국사1(A)_박은주/ 박은주(201/202)		한국사1(B)_박은주/ 박은주(201/202)	창의적 사고기법과 창 업 아이디어 _배영민/ 배영민(201/202)

(2) 학생 시간표

학생 시간표는 그 시간표를 사용하는 **본인은 물론 이 시스템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학생을 빠르게 찾고 만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학생의 시간 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 시간표는 중요하다. 어드바이징을 담당한 교사는 대상 학생들의 시간표를 보고 학습량의 적정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4] 학생 A의 시간표

시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07:00-07:30	아침활동			아침활동		
07:30-08:30	아침식사			아침식사		
08:30-09:00	아침독서	체크인	아침독서	예배	아침독서	아침독서
09:00-09:35	1교시	목상	목상	예배	목상	목상
09:45-10:30	2교시	독서	어드미팅	공강	자율	재량
10:35-	3교시	수학II(상)A_이정현/이정현	공강	수학II(상)A_이정현/이정현	자율	재량

4) 맞춤형 교육과정 진행을 지원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에서 LMS의 역할은 지대하다. 강의실, 학사일정, 게시판, 300여 개가 넘는 개설 교과에 대한 정보 등 전체적인 안내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다.

4 학점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점제에서 수업 개설의 주체는 교사, 학생, 외부 멘토이다. 교사, 학생, 외부 멘토가 개설한 수업의 평가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지의 여부가 학습 과정 전체를 좌우한다. 교과전문성이 확보된 교사 개설 수업의 경우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 개설 수업의 경우** 매우 치밀한 학습 설계 계획이 필요하다. 바로 **교과 멘토의 안내가 절실**하다.

교사가 개설한 수업의 경우 교과 멘토의 평가가 대부분 100%이다. 그 비중은 각기 교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간평가, 기말평가, 성실도, 태도를 평가 요소에 포함시켰다. 학생이 개설한 수업의 평가는 수업의 개설 전에 교과 멘토와 함께 논의되고, 쿼터 말 평가 시간에 멘토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 부분은 수업에 참가한 학생의 **본인 평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과 멘토의 평가 내용에 의존한다.

[그림 5] 수학Ⅱ(상)A-교사개설 수업의 예

	평가자	비율	평가계획
평가계획	본인	0%	
	멘토	10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성실도 20%, 학습태도 20%
	어드바이저	0%	
등급기준	A - 매우 뛰어남(Outstanding) : 100-90 B - 우수함(Competent) : 89-80 C - 최소기준충족(Minimal) : 79-60 F - 학점 이수 하지 못함 : 59점 이하		

5 학점제 운영의 결과는?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는지, 학습 성과는 어떤지, 과정에 대한 평가는 만족스러운지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표 2>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설문 결과

질문	참여 하지 않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학습 계획서는 본인의 관심사 및 진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1	1	6	6	25	40	18	5.52
학습 계획서 작성시 학생, 학부모, 멘토의 참여와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1	2	7	14	33	31	9	5.11
본인의 계획에 따라 학습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1	1	0	7	28	41	18	5.65
학습 계획서는 학습 활동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1	2	0	8	32	42	12	5.49
학습실행 단계에서 계획된 학습이 충실하게 이뤄지는 편이었다.	1	0	1	7	32	43	12	5.56
학습실행 단계에서 교과 멘토로 부터 학습 진행 정도와 성취도에 대해 원활하게 검토를 받았다.	1	1	3	14	36	27	13	5.27
교사의 평가는 나의 학습 성취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였다.	1	1	1	5	26	48	13	5.57
학생의 관심사 및 진로에 해당하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학생들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0	2	5	10	36	32	12	5.30

질문	참여 하지 않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개설된 수업 내용은 대체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1	2	5	6	32	38	14	5.40
교사의 평가는 성취도와 참여도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였다.	1	0	0	7	31	44	15	5.64
이전 쿼터 반성이 새 쿼터 시간표 작성에 반영되었다.	1	1	2	2	24	44	22	5.72
시간표 작성 시 자기 주도적인 학점 신청이 이루어졌다.	0	1	1	3	18	49	24	5.92
시간표 작성 시 희망하는 과목을 신청할 수 있었다.	1	1	4	3	28	41	19	5.62
수강신청 시스템은 어려움 없이 계획적인 시간표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	0	0	3	3	16	47	29	5.97

6 학점제 운영 후 학생들의 진로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배울 교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소위 **교육과정의 결정권을 학생들에게 넘기는 결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유롭게 배울 교과목을 학생들 스스로 선택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학생들은 교사에게 ‘어떤 교과를 먼저 배워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과정을 안내하며 B학교가 배운 것은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에게 선택하게 한 것이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적성을 알아야 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진로 교육과정을 함께 진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러한 학점제를 실시한 이후 학생들의 진로 사항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1) 학생들의 진로 선택

2020년 현재 3기까지 10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B학교의 진로는 8명(87.6%)을 제외한 97명(92.3%)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였다.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중 3명은 농사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기관에서 농사 공부를 2년 동안 하였다.

대학진학의 전형 별 진학 결과는 **대안학교 전형**이 가장 많았고,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검정고시 점수를 비교내신으로 환산해 주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뒤를 이었으며, 수능 최저 점수를 기대하는 전형을 포함하면 대안학교 전형을 능가한다.

결국,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검정고시’이며 지역 거점 대학의 장점을 감안한다면 내신을 검정고시로 확보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방향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또 새롭게 증가세를 보이는 전형은 일반 학교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우수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서서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열고 있다. 대학별 전형에 따라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 면접 등의 서류 및 준비가 필요하며 예체능의 경우 실기 혹은 수능 성적이 필요한 전형도 있다.

〈표 3〉 대학입시 전형별 결과

전형 종류	1기	2기	3기	계(명)
대안학교전형	6	8	13	27
교과면접	8	9	4	21
교과최저	3	8	8	19
면접	3	0	1	4
국외진학	2	1	1	4
정시(예체능)	2	1	1	4
어학특기	1	0	0	1
교과	0	1	9	10
면접실기	1	0	0	1
비진학	1	2	4	7
다자녀	0	1	0	1
학생부종합	0	1	4	5
논술	0	0	1	1
계(명)	27	32	46	105

〈표 4〉 대학 입시 전형별 준비사항

	전형 종류	준비 사항
1	대안학교전형	자소서+생기부+검정고시성적+면접
2	학생부종합	자소서+생기부+검정고시성적+면접
3		자소서+생기부+검정고시성적+면접+수능최저
4	학생부교과	검정고시성적+수능최저
5		검정고시성적
6	일반전형	검정고시성적 + 면접
7		검정고시성적
8	논술전형	검정고시성적+논술
9	예체능실기	검정고시성적+실기
10	다자녀	검정고시성적+수능최저
11	어학특기자	자소서+활동보고서+검정고시성적+면접
12	정시	수능+실기(체육/피아노/미술)

2) 진로 및 진학의 전망

2019년 대입제도 개편안(2019.11.28.)에 의해서 2024년 기준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고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방향에 의해서 향후 이어질 대입 전형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 (1)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폭 축소
- (2)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특기 사항의 강화
- (3) 학생생활기록부의 수상기록,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기록 미반영
- (4) 자소서 폐지에 의한 면접의 확대

학교 교육과정 상에 기업이 정신, 농사, 창업-창작에 관한 교과를 개설하여 가르치고 직업체험 및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후 진로로 대학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많은 학생들의 인식 안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사회적 구조를 눈치 챌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구조가 **대학과 상관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환**된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서 무조건 대학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갈수록 감소하는 학령인구 상황을 보며 경쟁적 구조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을 일정 등급에 못 미치는 탈락자로 취급하는 상대적 평가 체제를 대폭 개편하여 학습자들이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IV 결론

본 원고는 교육과정이 교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배운다면 스스로 다양한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자신이 배울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감안하여 학점제를 교육 과정에 적용하였고, 학점제의 적용을 위한 현실적 기반으로 학습관리시스템의 필요를 느껴 만들게 되었다. 또한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초기부터 자기 이해를 거쳐 다양한 진로를 알고 경험하는 과정과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함께 수반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4년 8개월 동안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 계획, 개발, 실행, 결과분석, 설문 등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실행

연구를 통해 정리했다. 앞으로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고등학교 시기를 자신의 꿈을 찾고 도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막연하기만 한 학점제를 하나의 실제 예로 소개되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본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점제를 원격으로 지원했던 학습관리시스템의 수용 한계 인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인원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데이터의 통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교과 교사로 준비된 교사 자원을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멘토로 전환하도록 요구해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게다가 참가자 전원의 긴밀한 동의와 시기적절한 정보교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밀착형 교육과정이라는 한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시작 전에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발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점제나 맞춤형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진로를 더욱 풍성하게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인재상 육성을 위한
특성화 학사제도



소명 공동체로 가는 진로교육

별무리 학교는 학생들이 자기 이해와 소명 발견,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돕는 동시에 졸업 후 더 깊은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멘토 및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과 진로’ 토론문

우 소 연
꿈이룸학교 교장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과 진로’ 토론문

우 소 연 (꿈이룸학교 교장)

1 들어가며

미래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다음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말한다. 이들은 인터넷, 유튜브, 텔레비전, 게임, 휴대폰 등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배우며 학교 밖 학습을 영유하고 있다. 그들이 몰입할 수 있는 학습 방식이 필요하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은 25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했다. 평균 수명 120세, 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되며,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애완 로봇을 키우며 살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예견은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기기가 등장해 더 이상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기존의 경험에 빗대어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마크 프렌스키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가늠할 수 없는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은 다음 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향해갈 수 있도록 방향키를 내어주라**’고 제언한다.

교사인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파트너로서 관계 맺으며,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

이상찬 교감선생님의 논의에서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배운다면 스스로 다양한 진로를 찾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키를 내어주는 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첫째, B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의미를 찾기 위해 이상찬 교감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둘째, 대안학교는 학교별로 특성이 다르겠지만 학습자 중심 교육을 전제로 한다는 가정 하에 대안학교의 교육 경험이 대안학교 졸업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물들을 통해 찾아보겠다. 셋째, 세대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모색되는 대안학교 사례를 통해 학습자 중심 교육의 다양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가 대안학교에 갖는 의미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2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와 맞춤형 교육과정

1) 맞춤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

■ 맞춤형 교육과정

쿼터제(9주), 다양한 학습 설계를 장려하고 쿼터 종료 후 프로젝트 학습 주간을 통해 학습의 보충, 심화, 현장(학교 밖)과의 통합을 위한 시간을 제공. 필수학점과 선택학점, 졸업 요건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를 정해진 규정과 시기에 이수함. 한 쿼터 당 학생이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필수 6학점, 선택 17학점이며, 선택학점은 20학점 이상 신청할 경우, 어드바이저와 협의하여 적정성을 검토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질문 1> 원고에 따르면 2017년 1쿼터 개설된 교과 270과목, 2쿼터 311과목이었음. 전원형 대안학교로서 도시에 비해 교육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진행할 수 있었는지요?

<질문 2> 저희 학교의 경우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다가 올해 2학기제로 변경하였음. 학생들의 학습을 설계하는 시간과 학기별 수업을 마무리하는 발표회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함. 미래는 ‘일/학습/여가’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도 여가를 즐기고, 심심하게 지낼 시간이 필요할 텐데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수업 양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학습지원시스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시간표, 강의실, 교사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 전체적인 흐름을 학습자와 교사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서 학교 문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함.

<질문 3> 맞춤형 교육 운영의 효율성과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학습지원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대안학교의 학생 맞춤형 수업의 확산을 위해 시스템을 보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4>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은 첫째, 교과 선택을 스스로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높이고 둘째, 자신에게 맞는 배움 그 자체를 기획하는 장점이 있다. 학습지원시스템은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하지만, 다른 교사나 학생과의 의사소통의 경험을 통해 교과가

개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움 그 자체를 기획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요?

■ 학생들의 진로는 대학 진학

〈질문 5〉 학습자들이 각기 다른 개성으로 배울지라도 입시 전형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부의 맞춤형 교육과정'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대안학교도 대학 진학이 목표라면 우리가 공교육의 문제를 간파했지만 대학 진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통적인 대안학교들이 '대안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 구조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순 없다고 해도 학생들의 배움이 청년 시절에도 이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와 연결된 시도가 필요하다. B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며, 사회진출과 관련한 시도나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2) 대안학교의 교육적 경험이 졸업생의 진로에 미친 영향

대안교육은 실제로 인문학 수업, 생태위주의 교육, 프로젝트교육, 인턴십 과정, 다양한 체험활동 등 기존의 학교 제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소외받거나 새로운 요구를 가진 학습자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존 학교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왔다(조지형, 2018).

대안학교는 공교육 제도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적 실험들을 구현해왔고, 그 결과 학습자들의 삶과 진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을 중심으로 '대안학교의 교육 경험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진로를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김영화(2014)는 대안학교 졸업생 29명이 대안학교에서 겪은 경험과 졸업 이후 자신들의 삶의 전개에 대해 집필하여 출간한 생애사 에세이를 분석하는 한편, 집필자 중 5명의 졸업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높은 공동체 생활로 습득한 인간관계와 소통 능력, 자신의 적성 및 관심과 하고 싶은 일 발견, 자발성과 끊임없는 성찰, 비판의식과 같은 대안학교에서의 경험이 졸업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최복희(2018)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기숙형 비인가 대안학교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청소년 8명의 심층면담을 하였다. 그는 졸업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생활습관의 변화, 관계 경험의 변화, 그리고 자기 경험의 변화로 변화 경험을 구조화하였으며, 가정을 떠나 자기인식, 자기성장, 태도변화의 단계를 거쳐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조지형(2018)은 대안학교를 5년 이상 경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안학교의 교과 학습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재학생들에게 교과 수업에서의 중요한 경험은 수업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경험, 다양하고 새로운 수업 방법을 통해 얻은 경험, 지지자이며 조력자로 역할을 하는 교사와의 유대감을 느낀 경험,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 사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실용 학습 경험, 토론과 질문을 통해 사고력을 확장해가며 자신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 다양한 교과 학습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해 갈 수 있었던 경험 등이다.

대안학교 학생들은 대안학교의 삶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고, 자아정체감 획득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최복희, 2018). 연구물들을 통해 **대안학교 학생들은 정체성이 분명하고, 신뢰에 기반한 의사소통,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산업 사회는 어떤 경로를 따라가면 진로(또는 직업)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직업 선택에 일정한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 사회에서 시스템이 역할을 정해주었지만 새 시대에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¹⁾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안학교의 학습자 중심 교육은 내가 누구 인지를 분명히 하고, 자기 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는 B학교의 사례처럼 참여 학생들과 교사와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교육의 방법을 수정해가며 안정보다는 지속적인 변화를 선택한다. 여기엔 특별한 정답이 없다.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사와 학생이 신뢰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무엇이 좋은 교육인지를 서로 묻고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주도성을 찾아간다. 이것이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이다.

3) 미인가 대안학교의 미래 교육에 대한 사례

대안학교는 태생적으로 학습자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며 시대를 통찰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모색하는 유기체와 같다. 올해는 갑작스럽게 팬데믹 상황을 만나며 뉴노멀 시대의 교육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청소년의 삶의 변화, 4차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있는 **“꿈이룸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꿈이룸학교는 **‘인문학에 기반한 뉴미디어-예술 대안학교’**이다. 뉴미디어는 디지털에 기반한 쌍방향적 매체를 말한다. 드론, 아두이노,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꿈이룸학교가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들이 특별한 재능이 없이도 자기표현을 하는 도구로 뉴미디어 창작 도구가 유용했기

1) 나가누마 히로유키(2016). 2025 비즈니스 모델: 10년 후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트렌드. 한스미디어.

때문이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였다.

(1) 꿈이룸학교 교육과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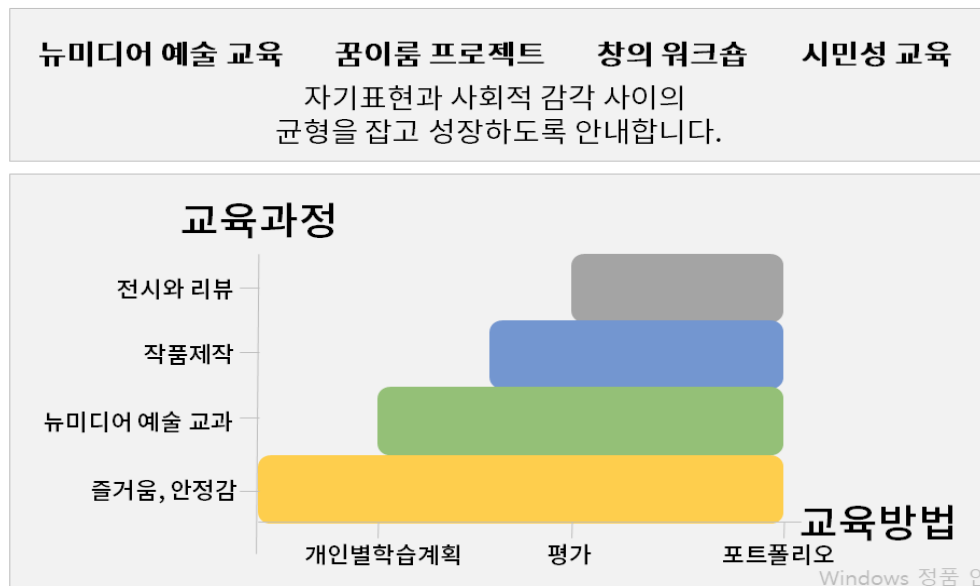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뉴미디어 예술 교육을 통해 활력을 찾고, 자기의 관심사를 찾아가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서 타인 그리고 사회로 시선을 확대하여 디지털 시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 디지털, 예술, 컴퓨팅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분야에 사회진출 할 수 있도록 진학, 창작,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자 한다.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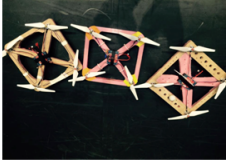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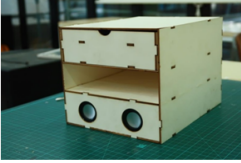
- 학제는 '기본교육과정' 2년 + '후기교육과정' 1년으로 편성한다.
- 학생의 관심 및 학습 성장 속도에 따라 학습의 방식을 다양화시킨다.
- 뉴미디어 예술 교육과정과 교양 과정을 배치하여 자기표현과 사회적 감각 사이의 균형을 잡도록 안내한다.
- 꿈이룸학교는 미래 학교의 방식이 connected learning이라고 보며, 학생, 전문가, 예술가, 시민이 네트워킹하며 상호 배우고 가르치는 플랫폼 학교를 실험하고자 한다.

(2) 꿈이룸학교 교육의 특징

가. 꿈이룸학교 교육과정



뉴미디어-예술 교육과정

1학기  RevisIT IT로 떠나는 여행 	2학기  Storytelling Marketing 스마트 공장, 스마트파워 	3학기  Atelier 카메라로 바라본 세상 
4학기  3D Printed Miniature Art 3D 프린터 제작과 활용 	5학기  Interactive Music 노래하는 아두이노와 프로세싱 	6학기  Animated Life 나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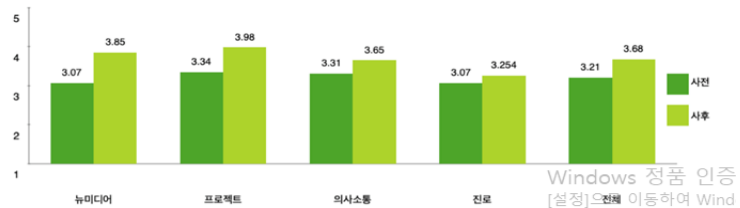
나. 교육 활동 피드백과 확장

- 디지털 네이티브 진로 역량 척도 개발

학생성장의 추적과 기록_진로역량지표 4개 항목 개발

- 1) 뉴미디어활용 표현 역량** (하위역량 : 도구활용, 표현)
여러가지 도구와 오픈 소스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도구 및 장치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
- 2) 프로젝트 역량** (하위 역량 : 기획, 실행, 평가)
어떤 업무나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
- 3) 의사소통 역량** (하위 역량 : 의사소통, 갈등해결)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며, 협력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역량
- 4) 진로역량** [하위 역량 : 인식 (자아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탐색 (진로정보, 진로탐색)]
직업의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

진로역량지표 및 교육만족도 향상
진로역량지표 (5점 만점)



- 전시회 및 포트폴리오

학생들의 제작 활동과 학습 경험을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학기별 수업 발표회 및 졸업전시회를 개최한다.

다. 디지털 기반 창의 일터 구축 중_ 디지털 가내 수공업 청년 일터

졸업생들과 고졸 청년이 협업하는 <디지털 가내수공업 일터>

- 참여자들이 디지털을 활용한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작, 제작, 판매함
- 콘텐츠 창작, 마케팅, 브랜딩, 판매를 가이드 하는 엔젤과 협업함
- 커뮤니티형 일터로서 참여자들과의 소통과 협업이 일어나도록 함
- 사업 내용

2D디지털 이미지	3D 디지털 입체물	IOT	기타
일러스트, 타블렛, 포토샵, 드로잉앱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캐릭터, 웹툰, 그림, 애니메이션, 영상 등	3D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캐릭터, 창작물, 레이저 커팅으로 제작된 상품, 창작물 등	아두이노나 센서 등을 활용한 디바이스, 제품 등	음식 개발, 레시피 개발, 출판 등
			

3 고교 학점제를 넘어서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음. 교육부는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성적 중심에서 소질과 적성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분야의 교과 중점학교 확대, 학생의 진로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부의 정책은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안학교는 지난 20년 동안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주장하며, 대안학교 법제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답보 상태이다. 미래 사회는 표준화된 인간, 표준화된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재승 교수의 말처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사와 학생 간의 구체적 관계에 기반한 학습, 실제 삶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며 학생들이 자기를 발견하며 정체성을 형성한다. 내 생각엔 이 과정이 자기만의 고유성을 형성하는 것이 **‘대체불가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여전히 학교 밖의 교사, 학부모, 학생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넘어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적 실험’**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대안학교는 미래 사회와 세대에 대한 통찰과 상상력으로 대안학교만의 고유한 배움과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실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서금옥(2019), 꿈틀리 인생학교 졸업생들의 교육경험 연구 : 진로정체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9
- 조지형(2017),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험과 그 의미,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 최수련(2018), 비인가도시형대안학교 졸업생의 교육적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최복희(2018), 대안학교 졸업생의 청소년기 변화경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주제발표 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사례

채 욱 경
지오학교 교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사례 “시골 작은 학교의 큰 도전들”

채 욱 경 (지오학교 교감)

프롤로그

지오학교는 2006년 전남 나주시의 폐교에서 ‘빛고을학교’라는 이름의 초등 대안학교로 시작됐다. 한 개인이 설립해 화순군에 중고등과정 캠퍼스까지 확장했으나, 2011년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설립자가 중고등 캠퍼스를 교사와 학부모 모르게 매각해버렸다. 이에 중고등 교사와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학교를 다시 사들이고 시스템도 새롭게 탈바꿈 시켰다. ‘지오학교’라는 이름도, 당시 아이들에게 공모한 것으로, ‘지금 오늘이 행복한 학교’의 줄임말이다.

새로운 학교는 ‘더불어 살며 자율적인 인간교육’을 교육지표로 삼아, 일상 속에 바른 인성과 품성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오학교의 영문은 Global Education Oriented school). 그리고 전국단위 모집으로 중고등과정 전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각 학년마다 10명 내외 한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살림, 노작, 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 문화예술교육과 국내외 여행이 특화돼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우선 음악분야가 중심인데, 5년 전 색소폰 앙상블로 시작해 현재 오케스트라로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색소폰이나 트럼펫 등 관악기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별 취향에 따라 드럼이나 기타, 첼로 등 다양한 추가 악기연습을 하고 있다. 승마, 골프, 수영 등 일반 학교에서 쉽지 않은 레저스포츠 활동이나, 매일 1시간씩 확보되는 체육시간도 건강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 중 하나다. 또한 학교 내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하게 통제 관리된다는 점도 주효하다.

“여행은 살아 있는 교과서”라는 모토 아래 2012년부터 매년 2주 안팎의 일정으로 외국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미국, 유럽, 호주 권역을 순회하는데, 특히 지난해 부터는 오스트리아 빈이나 사이판에서 한 달씩 장기체류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올해는 운 좋게 연 초에 다녀왔다. 외국여행 외에도 매달 같은 반 친구들과끼리 1박2일로 국내여행을 다니는데, 역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중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과 여행프로그램은 실제 지오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외국여행을 갈 때도 사전 자료 조사와 발표, 현지인 인터뷰 등 학습과 연계시킨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지고, 학생 개인별 맞춤 진학지도가 더해지고 있다.

지오학교의 특색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드림반’이다. 정규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좋아하는 활동으로 채워가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오전 내내 잠을 자고, 오후 내내 악기를 불건 최소한의 자기 학습시간 외엔 자유롭게 시간표를 짜고, 그에 따라 활동한다. 색소폰을 하루 8시간 이상씩 부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부터 딱히 악기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게임도 못하니 악기라도 불자”는 게 음악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 모습도 있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실력은 월등하고, 실제 공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적지 않다. 놀 만큼 놀고, 쉴 만큼 쉰 아이들은, 검정고시 등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곤 한다. 게임과 개인주의,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지쳐 있던 아이들이 점차 성취감을 쌓아가면서 자존심을 키우고, 협업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체득하며, 음악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배워나가는 성장 과정을 매일 지켜본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이 어울려 있는 곳이 지오학교다.

1 아이들, 엘토색소폰을 잡다

폭풍성장기인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 음악을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악기를 배우고 연주곡을 완성해 가면서 개인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과 협업 활동을 통해 **공동체 생활의 어울림**을 배워갈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소년기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악기 수업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 선택권 없이 억지로 배웠던 탓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 역시 자녀들이 원했던 원치 않았든 악기를 꾸준히 배우지 못하는 현실과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편이다.

이를 감안하여, 지오학교의 초기 악기수업은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통기타를 기본 악기로 삼고 희망자에 한해 밴드 수업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통기타와 밴드활동이 학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협업을 통한 음악의 영향력을 담보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학부모들의 교육비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구조상, 강사 수급도 녹록치 않았다.

음악수업의 효용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악 및 관악지휘를 전공하고, 이미 여러 학교에서 풍부한 지도경험 쌓은 교장선생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했다. 고심 끝에 2015년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1인 1악기로 엘토색소폰**을 적극 권하기로 했다. 악기 구매비용이 부담스러울 학부모들에겐 “아이들이 악기를 포기하지 않게 지도하고, 다양한 연주곡 완성 및 협주까지 완성해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임, 그리고 졸업 시 희망한다면 학교가 그 악기를 중고로 재구매하겠다”고 약속하며 본격 엘토색소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엘토색소폰 선정 이유는 비교적 폭넓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악기로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기에 적합해서이다.)

2 한 곡의 완성, 무대에 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시작된 관악 수업이 아니어서인지 초기 관악 수업 진행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엘토색소폰이 플룻이나 클라리넷처럼 우아함이 느껴지지도 않는다고거나, 목에 걸고 손으로 받쳐야 하는 무게감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악보를 읽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제 와서 음계 공부부터 하기는 싫고 차라리 악보에 계이름을 써서 연습하겠다고는 했지만 계이름 적는 것도 귀찮아하기 일쑤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잡은 악기지만 스스로 소리를 내고, 계이름을 명쾌하게 붙여 내면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숙학교의 장점인 학생들의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과 음악선생님이신 교장선생님이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점은 학생들의 연습시간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지오학교의 경우, 학교생활시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허락받은 경우 외엔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은 여가시간을 악기연습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은 학생 개개인의 계획에 의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악기연습, 미술활동 등 문화예술 영역과 체육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이렇듯, **관악 전공 교사의 인력 확보, 무분별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은 관악수업의 정착 및 연주 실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드디어 운동회 등 교내 작은 행사에서 연주 무대에 서게 되었다. 그 여세를 몰아 학교 밖 공연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 수소문한 결과, 첫 외부 공연은 광주에서 개최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청소년대중예술교류전 무대**로 결정됐다. 그날 공연의 떨림과 성취감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귀한 자산이자 자신감이 되었고, 학교 역시 학교 고유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이후로 크고 작은 무대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이 설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찾아갔다. 많아지는 기회만큼 연주곡을 늘려야겠다는 자연스런 동기부여도 생겼다. 2015년 신입생들로 구성된 1기 엘토색소폰 앙상블에 이어 2016년 신입생들의 합류로 연주자 수가 늘게 되고, 그로 인해 화음이 풍요로워지고 곡 선정의 폭도 넓어졌다. **2016년에는 제주국제관악제를 비롯하여, 여수 마칭(관악) 페스티벌** 등에 참여해 전국의 여러 관악팀과 어깨를 나란히 해보기도 했다. 큰 무대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관악 연주의 이해와 감상의 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다.

학생들의 연주 실력이 쌓이고 다른 지역 무대에 서보면서, 학생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연주하는 사람 못지않게 듣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음악회를 쉽게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획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이 농촌마을인데, 우선적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면민의 날 행사,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갔다. 음악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관악수업의 의미도 확장됐다.

이러한 성과들이 하나둘 쌓이던 중, 2017년은 악기수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전남교육청에서 공모한 **‘대안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비로 음향장비를 구입하여 연주의 질을 높이고, 엘토 색소폰 앙상블만으로 단조로울 수 있는 기존공연에 밴드공연이 더해졌다. 밴드팀은 지원 사업비로 전문 강사 수업을 받으며 실력을 키운 것이었다. 또한 거리공연의 메카라 불리우는 서울 홍대 거리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부여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 이후, 광주비엔날레, 광주충장축제, 전국농업박람회, 김해대한민국관악제, 부산 광안리, 여수 이순신광장, 목포 평화광장 등 광주전남 지역의 굵직한 행사의 자리에서, 전국의 유명 버스킹 장소에서 학생들의 같고 닮은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다. 외부 공연 및 행사에서 다양한 연주팀의 공연을 보고, 학교 내 밴드 연주팀이 생기면서 학생들은 **악기의 다양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 스스로 엘토색소폰앙상블의 단일 악기가 아닌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된 브라스밴드, 윈드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전남교육청의 지원사업으로 지오학교 관악수업의 기본 틀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2019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은 기자재 지원 비중이 매우 커졌는데, 지오학교는 기자재 비용을 전적으로 관악기 및 밴드악기 구입으로 사용하면서 지오학교의 숙원사업이었던 **관악수업 악기의 다양화**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악기 구매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고 학생들의 개성을 살린 고른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폭넓은 음악적 이해를 도울 합주가 가능해 진 것이다. 이 지원사업은 다양한 악기의 학교 비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를 관악기 파트별 강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악기별 기본기 다지기 및 악기강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4 진정한 나눔과 도전을 펼쳐내는 아이들

‘찾아가는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음악적 실력 향상과 정서순화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다. 영암의 장천초, 화순의 이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지오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악기를 붙여볼 수 있게 악기체험활동까지 생각해 냈다. 또 관람객의 취향을 고려하여 주 관객층이 어르신들이면 트로트 곡들을 준비하는 등 상대를 배려하는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체득해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전남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의 국외팀을 신청했다. 음악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클래식 세계를 살펴보고 거리공연을 직접 진행해 보겠다는 계획이었다. 학생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어 외에 **독일이 공부**로도 열정을 보여주었다. 실제 희망자에 한해 독일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영역과 진로고민을 폭넓게 확대시키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올해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외팀 진행은 모두 무산되고, 국내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전남 별교 출신의 음악가 채동선의 음악세계와 한국음악에 미친 그의 영향과 별교지역사회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 신청부터 준비과정까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인데, 중학생들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을 초월한 학생들의 어울림, 악기연습 시간의 확보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과제수행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성실성 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숙학교의 특성상 일정시간이 되면 학생들의 휴식 및 취침관계로 악기연습실 사용에 한계가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사감 선생님께 연습시간 보장을 부탁해 가면서 하루하루 더욱더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5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지오학교의 꿈과 열정

2019년 하반기 전남교육청 지원사업의 결과로 구성된 ‘지오학교 윈드오케스트라’가 악기별 강사들과 함께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서 2020년도의 새로운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던 게 사실이다. 1학기 중반까지 가정에서 온라인수업을 하게 돼 악기연습은 사실상 중단이 되었고, 이후 5월 중순에야 등교수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악기연습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다.

학생들은 ‘찾아가는 음악회’ 실행이 가능할지 걱정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 서로를 격려하며 그동안 놓쳤던 연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면서 다른 공연팀이 시행하고 있는 **무관중 공연을 우리도** 시도해 보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나, 문화적 소외가 큰 지역들을 찾아가 멀리서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것인데, 녹화공연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내놓은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에 맞추어 학교는 영상촬영과 온라인 계정 구축 등 새로운 공유시스템의 연구 작업에 돌입하여 새로운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에필로그

돌아보면 지난 10년 간 지오학교는 음악활동 외 다양한 분야로 성장의 연속이었다. 엘토색소폰 앙상블로 시작된 음악수업이 ‘찾아가는 음악회’ 형태의 봉사활동으로 확장되고, 학생들의 성장이 이 확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서도 그에 걸맞은 여러 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학교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보람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 **봉사활동 인증제**의 도입을 고민했다. 봉사활동 인증기관에 문의한 결과, 우리의 활동취지와 참여 방법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 봉사활동 인증센터의 자격을 확보하고 봉사활동의 공간이자 인증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의 위탁교육기관** 역할도 시작했다. 학교 내부 역량의 강화와 국가공인기관을 통한 지오학교 교육프로그램 인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이를 통해 지오학교 역량을 지역사회에 더 폭넓게 기여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도 갖게 해 주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 있게 교육할 수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나눔 및 봉사경험 교육을 통해, 지오학교의 가치교육을 보편적 교육으로 확대 접목시켜보려는 도전의 일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의 변화와 위기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평범한 일이 될 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교육의 또 다른 사명이 된 시대에 모든 교육기관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존과 상생의 길**을 나아가길 바란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사례, 토론문

안성균
산마을고등학교 교장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사례, 토론문

안 성 균 (산마을고등학교 교장)

“시골 작은 학교의 큰 도전들”,

지오학교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발제어라고 봅니다. 농촌지역 시골마을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미인가 대안학교이지만, 특화된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글로컬(Glocal)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학교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지오학교의 영문표기(Global Education Oriented school)도 양상블을 이룹니다. 더욱이 설립초기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한 힘은 지오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음악 대안학교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10대에게는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와 같은 단기 중점학교의 성격이 더 적합한 모델일지 모른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활동에 방점을 두고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일정한 핵심주제에 집중하고 결과물인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보통교육의 흐름은 점차 입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발표문의 말미에 언급한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인증제’는 학습의 결과에 대한 교육적 선순환 구조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비인가 대안 학교도 여건이 되는 현장은 봉사활동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을 한다면, 보건복지부의 VMS나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된 봉사활동인증센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재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 관리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교육의 일각에서 미미하지만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름의 영역을 확보하여 ‘대안교육’, ‘혁신교육’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개혁적인 교육판은 퇴조와 약진의 갈림길에서 묘한 대조를 보이는 한편, 그 틈새에서 미래 대안사회를 전망하며 생태적인 철학으로 한 겹 더 무장하고 진일보한 교육과정을 도모하는 일군의 학교와 현장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른바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란 화두를 공통으로 지향하며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재편하는 그들을 저는 ‘전환학교’라 칭합니다.

‘전환학교(Transition School)’라는 용어는 ‘전환마을(Transition Town)’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고 피크오일에 대처하는 생태주의 마을이 그 과정에서 잃었던 마을의 공동체성까지 회복하며 삶이 향상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학교가 ‘생태전환’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변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담아본 저의 신조어입니다. 10년 전부터 이러저러한 공적인 발표 자리와 사석에서 입에 담았던 이 용어는 몇 년 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 오디세이 학교와 꿈의 학교 등에서 ‘전환기 학교’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면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자유학기제의 원조 격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에서 전환이란 말이 잠시 언급되다가 사장된 바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디세이 학교를 전환학교로 지칭하며 확대에 나섰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가칭 ‘해리포터학교’라는 문화예술중점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저는 이 또한 전환학교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한편 전환학교라는 배움터에서 다루는 교육내용과 방향을 일컬어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이라 말 할 수 있는데, 저는 전환교육의 의미를 ‘적극적 의미의 생태교육,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교육, 생태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 반자본 반신자유주의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정도로 정의합니다. 폭넓게 적용하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꿈꾸거나 새롭게 교육의 전환을 도모하는 학교들은 모두 전환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교육과 대안교육이 가야 할 핵심방향은 ‘생태전환교육’과 ‘학생 맞춤형 중점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으로 대변되는 Z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다양성과 개별성에 있어서 뚜렷한 자의식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개별화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10여년 밖에 남지 않은 지구의 불가역적인 기후위기 상황은 교육의 불가능을 넘어 생존의 불가능을 외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임을 알려줍니다.

몇 가지 질의이자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와 홈페이지를 일별했을 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채 드리는 질문이라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오학교는 체계적으로 학생 맞춤형 개별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학습의 개별화 원리를 어떻게 수업이나 교육활동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 나누어 주시고, 특히 ‘드림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오학교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비인가 대안학교의 신입생 감소의 파고를 비껴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고, 만일 신입생 지원자가 감소 추세라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셋째, 지오학교는 학생들의 국내외 대학 진로진학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외국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진로진학을 위해 기울이는 지오만의 노하우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상대적으로 높은 납부금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는 없는지요? 여러 비인가 대안학교가 비난받는 가장 곤란한 지점입니다. 지오학교만이 아니라 당국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비인가 대안학교가 마주한 절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육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대안학교와 차별되는 승마와 골프 등 고가의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수익자 부담금(납부금)으로 충당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교육과정 상 경제와 관련된 교과나 교육활동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재정자립을 위한 별도의 수익사업이나 교육과정에 창업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작은 활로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미약한 정도이겠지만 교육적으로 대안의 상징성은 충분하리라 여겨집니다.

다섯째, 국내외 여행과 문화예술교육, 특히 음악 및 공연으로 대표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국영수사와 중심의 일반교과와의 균형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비인가 대안학교보다 상대적으로 큼니다. 학생들의 교과선택권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일반교과가 필수 이수인지 선택 이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교과 영역이 좀 더 확대 심화되는 것이 학교의 특색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 의견을 드립니다.

여섯째,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내부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목표와는 달리 이중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 교사회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행정적인 업무처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기존의 아이들과 위탁학생 간의 위화감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치와 위탁생 배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학교의 규모와 교육내용으로 볼 때, 각종형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이러한 고려를 하시는지요?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받게 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논의된 바가 있다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고, 아니라면 선생님의 사견이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는 학교교육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힘과 21세기를 이끌어 갈 리더십을 기른다'는 지오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지오학교의 자체 교사연수시스템이 있다면 공유를 청합니다.

아홉째,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 적절한 교육모델로 마을 속에 있거나, 자연의 품에서 기숙을 하는 작은 대안학교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현재 지오학교는 어떠한 교육방식으로 이 변화에 임하고 있고, 학교차원에서 어떻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지요? 특히 지오학교의 강점인 국내외 여행수업이 지장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요? 많은 수의 대안학교 역시 국내외 이동수업을 교육과정의 중요 프로젝트로 삼아 배치 운영하고 있기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요 교육방향인 생태전환교육 관련하여 지오학교에서 따로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생태전환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발표 중에 포함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선별하여 짧게 말씀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에펠로그의 말씀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의 사명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힘을 기른다'는 지오학교의 교육 목표와 더불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피아제(J.Piaget)의 정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쪼록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종결되어 지오학교의 장점을 살린 '찾아가는 음악회'나 여러 축제와 행사 현장의 버스킹에서 학생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날이 속히 도래하여 '나눔의 가치'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지오학교의 교육지표인 '더불어 살며 자율적인 인간교육'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지금 오늘이 행복한 학교'를 넘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꿈을 꾸며 내일도 행복한 학교가 되길 두 손 모아 희망합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워크숍자료집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

인 쇄 2020년 11월 12일

발 행 2020년 11월 12일

발행처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인쇄처 나라인쇄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044-415-2153)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